

#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의 실태와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정 원 철

(신라대학교)

## [요 약]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일반성인에 비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의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샘플의 크기는 414명이며, 문제성음주의 측정은 AUDIT(알코올사용장애검사)이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카이검증, t-검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이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일반성인들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실증되었으며, 성인들에 비해 폭음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요인과, 개인특성요인, 가족환경요인, 학교환경요인으로 회귀식을 구성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신앙생활, 최초음주연령, 감각추구경향, 음주동기, 부모음주문제, 가족지지, 학업성적, 친구의 영향은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영향력이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음주문제 해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하고 추후의 과제를 부언하였다.

주제어: 대학생 음주, AUDIT, 심리사회적 요인, 문제성음주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대학시절은 음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나 음주의 양이 뚜렷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에게 있어 술은 대학입시에 따른 해방감과 비민주적인 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젊은 지식인들의 현실 도피용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매년 신입생환영회장에서 강제로 마신 술로 인해 대학생이 사망했다는 언론보도는 대학생음주의 부정적인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실태를 보면 월간 음주율이 92.2%로 미국의 86%보다 높으며, 일주일에 2-3회 음주하는 학생의 비율이 32%에 이른다. 또한 폭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시적 기억상실(black out)을 경험한 대학생이 46%에 이르며, 전체의 14.4%(남학생의 19.9%)가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박종순·천성수, 2000).

대학생의 문제성음주는 음주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나 제 3자에게 물적·심적인 피해를 주며, 궁극적으로는 대학생의 주요본분인 학업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 게다가 대학생에서 만연하고 있는 폭음과 과음의 음주양상은 올바르지 못한 음주규범을 몸에 익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릇된 음주습관과 음주문화를 사회로 이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개인들이 대학시절에 보였던 문제성음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개인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여전히 문제성음주자로 남는다(Ham and Hope, 2003). 이렇듯 대학시절의 과음과 폭음은 문제성음주자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의 음주 문제는 대학시절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만성적인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Wechsler, Lee, Nelsen and Kuo, 2000).

만연하는 우리사회의 알코올중독 문제를 고려할 때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개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다수의 대학생이 알코올을 사용하지만 알코올을 사용하는 모든 대학생이 음주문제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어떠한 특성과 환경이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음주문제를 가진 대학생은 추후 알코올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노력은 알코올중독자가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거쳐 중독으로 발전하며, 알코올중독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강화되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국내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며, 따라서 대학생의 음주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 역시 매우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문제성음주<sup>1)</sup>의 실태와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을 규명해봄으로써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대학생의 음주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요구되는 다각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사회에 만연하는 음주문제의 개입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알코올 사용관련 문제들은 사용빈도와 과생문제에 따라 알코올중독, 알코올의존(남용), 문제음주, 음주관련 문제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병리적이고 낙인의 성격이 강한 용어를 대신하여 '문제성음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문제성음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합의는 없는 상태이며, 유사한 개념으로 alcohol binge drinking, heavy drinking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대학생의 음주문제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195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스트라우스와 베이콘(Straus and Bacon, 1953)의 연구 이래 대학당국이나 사회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심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대학생의 음주는 학생이자 성인으로서의 역할이 함께 부여되는 대학생이라는 독특한 생애주기(life cycle)에서 발생하며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음주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음주형태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은 다른 인생주기에 비해 과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동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서도 더 많은 음주량을 보인다(O'Malley and Johnston, 2002). 대학을 졸업한 개인은 대학시절에 비해 음주량이 감소하기도 하는데, 이는 진로와 고용에 대한 책임감과 관련이 있다(Zucker, 1987).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그들의 음주빈도와 비례하며, 여타의 연령대에 비해서 비교적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지각이나 결석과 같은 간단한 문제들에서부터 형사사건이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는 일반성인의 음주문제 양상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Vik, Carrello, Tate, and Field, 2000).

미국의 경우 한해 1400여명의 대학생이 음주로 인해 사망하며, 50만 명 정도가 음주로 인해 부상을 입으며, 7만 명이 음주로 인해 성폭력을 경험하고, 40만 명이 음주로 인해 불안정한 성관계에 노출된다. 게다가 전체 학생의 25%는 음주로 인해 학업의 결손을 경험하며, 11만 명이 음주운전이나 풍기 문란죄로 경찰에 연행된다. 또한 미국대학생의 31%는 알코올남용(alcohol abuse)의 진단이 가능하며, 6%는 알코올의존(alcohol dependence)으로 분류된다(Hingson, Heeren, Zakoos, Kopstein, and Wechsler, 2002).

빈번하게 과음하는 대학생은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로 인한 문제 즉, 친구와의 다툼, 사고, 재정손실, 결석, 예기치 못한 성행위, 자살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25배나 높으며, 음주하는 대학생의 32%는 음주운전의 경험이 있다(Wecsher, Davenport, Dowdall, Moeykens, and Castillo, 1994). 또한 대학생의 과음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다양한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을 높이며, 특히 여대생의 과음은 스스로를 성폭력의 희생자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높인다(Ullman, Karabotos, and Parks, 1999).

대학생의 음주는 음주하는 본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미국 대학생의 87%는 음주한 친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다. 또한 매년 6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음주한 동료에게 맞거나 공격을 당하며, 이들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은 모멸감, 원치 않는 성적접촉, 수면방해, 집중수발(intensive care) 등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 성폭력, 방화 등의 피해를 겪기도 한다(Wecsher et al., 1994; Hingson et al., 2002).

조성기·윤혜미·이혜경·최현숙·제갈정(2001)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 중 남학생의 96.8%와 여학생의 95.9%는 음주경험이 있으며, 그 중에서 14.1%는 알코올을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이유

로는 학과나 동아리 행사와 같은 사교적인 목적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스트레스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생에게 있어 문제성음주는 집중적인 지적투자가 요구되는 학생의 본분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동료나 주변사람을 위협하기도 하며 부정적인 음주습관을 학습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대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악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2) 대학생 음주의 심리사회적 요인

개인이 음주하는 데는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탐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심리사회적(psychosocial)'이라는 개념은 개인적(internal), 사회적(external)이라는 의미가 결합된 개념으로서 문제를 파악하고 다룸에 있어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심리사회적 요인은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규명한 햄과 호프(Ham and Hope, 2003)<sup>2)</sup>의 연구를 토대로 개인적, 가족적, 학교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과 학교가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가족은 개인발달과 행동의 준거집단으로 기능하며, 학교는 대학생의 주요 활동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할 심리사회적 요인은 개인적 특성요인, 가족환경요인, 대학생활요인이다.

### (1) 개인특성 요인

기대이론은 음주뿐만 아니라 약물, 도박 등의 중독문제를 규명하는데 권위를 가진 이론이다(Young, Oei, and Knight, 1990). '긴장감소가설(tension reduction hypothesis)'에서 발전한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따르면 음주행위는 개인의 부정적인 내적감정을 없애고, 유익한 정서상태를 더 많이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된다. 긴장, 우울,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자신들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음주나 약물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으며, 술을 마심으로써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일수록 문제성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Brown, Goldman, Inn, and Anderson et al., 1980; Kushner, Sher, and Erickson, 1999; Lewis and O'neil, 2000)는 음주행위를 설명하는데 기대이론의 유용함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파악에 널리 사용되어오고 있는 기대이론(Ham et al., 2003)을 중심으로 문제성음주와 관련되는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기대이론에 따르면 음주하는 개인들은 내적인 부정적 정서를 제거하고자 음주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로는 우울을 들 수 있다. 우울은 무기력하고 무가치하며, 죄의식의 감정이 동반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로서 음주와 상관성이 높은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우울과 문제성

2) 햄과 호프는 대학생의 음주에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인구학적 요인, 인격특성, 음주력, 음주에 대한 동기과 기대, 대응방식, 행동관여, 가족의 영향, 학교의 영향을 제시하였다.

음주와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Lewis and O'Neill, 2000; Nagosh, Wood, Cote, and abbit, 1994; Deykin, Levy, and Wells, 1987)를 종합해 보면 음주문제를 가진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자기이미지가 낮고 긴장이나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음주가 우울한 정서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울이 음주문제를 선행하여 나타난다. 이에 반해 일부에서는 우울은 장기간의 음주에 따른 결과(Vollrath and Togerson, 2002)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자기존중감(self esteem) 역시 개인적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기존중감이란 개인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심리적인 이미지로서, 이는 외부에 대응하는 내적능력으로 환산된다. 관련 선행연구(Lewis et al., 2000; Bean, 1975)를 보면 자기존중감이 낮은 대학생은 내적으로 긴장되고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음주문제를 가진 대학생은 일반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존중감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상술한 기대이론에서 보았듯이 알코올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개인일수록 문제성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가지는 인격적 특징(personality trait)으로 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감각추구(sensory seeking)경향'이다. 감각추구경향은 성인이나 대학생의 음주 예측요인으로 다수의 연구자들로부터 보고되고 있으며(Schall, Weede, and Maltzman, 1991; Katz, Framo, and DAmico, 2000), 특히 남학생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감각추구경향은 모험추구, 경험추구, 통제를 벗어나려는 경향, 무료함에 대한 민감성으로 설명된다.

음주동기는 대학생의 음주를 설명하는 유력한 개인적 특성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음주동기는 알코올을 필요로 하는 심리적 기능을 일컫는다(Baer, 2002). 이러한 음주동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강화되고 변형된다. 선행연구(Carey and Correia, 1997; Cooper, 1994)에서 음주동기는 대학생의 음주빈도와 음주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예측인자로 기능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2) 가족환경 요인

가족은 개인의 심리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발달과업이나 생활주기는 가족구성원에게 적응과 변화를 요구한다. 가족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음주문제를 설명할 가족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특히 대학생은 발달상으로 볼 때 부모에 의존하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독립을 성취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가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Zastrow, 2001).

대학생의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된 요인을 중심으로 가족환경요인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음주문제와 가족지지, 부부관계이다.

가족환경 요인 중에서도 부모의 음주문제는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음주문제를 가진 부모를 둔 대학생 자녀(ACOA)일수록 음주기대가 높고, 음주연령이 빨라지며, 음주량 역시 증가하고 음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경험한다(Sher, 1991; Jennison and Johnson, 1997; 박중순, 2000). 반면에 연구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에 반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연구(Hill, Ross, Mudd, and Blow, 1997; Harter, 2000)도 있다. 최근에는 부모의 '적응유연성의 관점'에서 부모의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려는 연구(Cater, 2000;

김혜련, 2004)가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지지적 상호작용 역시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주목된다. 가족지지와 관련한 선행연구(Hops, Tildsley, and Lichtenstein 1990; 김연숙, 1991; Prinstein, Boegers, and Sprito, 2001)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는 자녀일수록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기 쉽고, 부모를 지지적으로 인식하는 대학생일수록 음주문제가 작고, 알코올이나 약물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관계(부부관계) 역시 문제성음주의 예측요인으로 기능한다. 부모의 관계는 가족의 응집력으로 환산되며, 가족화합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약물을 사용하거나 음주문제가 많은 가정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부모들 간에 갈등이 많으며(Bray, Adams, and Getz, 2001), 가족 구성원간의 긍정적인 응집력은 불법약물 사용에 대한 친구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Prinstein et al., 2001)는 보고들은 음주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 (3) 대학생활 요인

대학생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주로 생활한다는 점에서 학교생활환경 요인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요인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요인을 구성하였는데, 이들 요인들은 학생의 주거형태<sup>3)</sup>, 친구의 영향, 학교성적, 학교만족정도, 동아리활동이다.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대학생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대학생에 비해 음주율이 낮고,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학교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음주문제가 일반거주자(예: 하숙, 자취)에 비해 더 심각하며, 특히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음주문제에 있어서 주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Valliant and scanlan, 1996; Wechsler et al., 2002; MaCabe, 2002).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음주규범이나 문화는 개인의 특성을 넘어 하나의 하위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White and Labouvie, 1989). 특히 대학생이라는 발달단계는 '친구(peer)와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완성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대학생은 친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관련 선행연구(Baer and Carney, 1993; Martin and Hoffman, 1993; Aagnostinelli, Brown, and Miller, 1995)를 종합해 보면 음주의 빈도가 많은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음주하는 친구가 더 많으며, 음주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대학이라는 조직에 대한 적응과 열의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높으려면 절제되고 성실한 대학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업성취도는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점 그 자체가 문제성음주를 쉽게 감별하는 예측요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Durkin, Wolfe and Clark, 1999).

조직에 대한 불만족이나 부적응은 문제행동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홍문균, 2001). 조직에 대한 불만족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소속대학에 대한 만족도와 음주문제와

3) '주거'와 관련된 변인은 '가족관련 변인'에 속할 수도 있으나, 대학생의 주거는 대학생활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기숙사생활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변인'에 포함하였다.

의 관련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박종순(2000)의 연구에서는 소속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적을수록 음주문제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록 대상은 다르지만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들일수록 중독성향을 지니는 대체물에 몰입하기 쉽다는 조춘범(2001)의 연구 역시 조직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지지하고 있다.

많은 대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하고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동아리 활동과 문제성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종순(2000)은 동아리 활동과 음주문제는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고찰해 보았다. 국내에서도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1990년 중반부터 일부 연구자들의 관심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실태를 소개하면서 개입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연구(고영태, 1995; 김영란, 1999; 조성기 외, 2001)와 대학생의 음주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홍종필, 1990; 장승욱, 1997; 신행우·채일호·한성열, 1997; 신행우, 1999; 박종순, 2000; 임효숙, 2002; 임경화, 2004)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연구 즉, 대학생의 음주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에서는 음주기대나 규범, 음주동기와 같은 특정변인들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한편 선행연구자들 중에서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다양한 요인을 통해 통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연구자로는 박종순(2000)이 대표적이다. 그의 연구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지니지만, 사용된 척도가 주관적이고 독립변인의 이론체계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처럼 기존연구들은 문제성음주와 특정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성음주에 기여하는 각 변인들의 종합적인 설명력이나 개별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체계성과 통합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실천전략을 구사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학생의 음주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설정된 심리사회적 요인이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에 어느 정도 기여하며, 이들 각 요인들을 동일한 수준에서 투입해 보았을 때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과 우선순위는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sup>4)</sup>들에서 대학생의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성별(Keeling, 2000; Perkins 2002), 종교활동(Durkin, 1999; Wescher et al., 1994), 음주시작연령(Baer, 2002)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4) 선행연구들에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종교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일수록 그리고 음주연령이 낮을수록 문제성음주의 정도가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 3.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는 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거쳐 배포되었다. 설문조사는 집단면접방식으로 200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영남지역에 소재한 A대학교에서 실시되었으며, 표본추출방식은 임의표집이다. 임의표집의 한계인 대표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일반교양 교과목을 선택하여 다양한 학과와 학년의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교과목은 1, 2, 3, 4학년이 모두 수강하는 강좌로서 5개 단과대학에서 8개 분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형 강좌이다. 따라서 수업에 참석한 8개 분반 수강생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수강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은 모두 432명이며, 부실하게 기입된 설문지를 제외한 414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 2) 연구도구

##### (1) 종속변인의 측정

대학생의 문제성음주를 측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는 알코올사용장애검사(AUDIT, 이하 AUDIT)가 활용되었다. AUDIT은 1989년 세계보건기구의 주관 하에 세계 6개국의 조사를 거쳐 개발된 음주척도로서 음주의 빈도와 양, 의존증상, 음주문제 세 가지 분야를 측정한다. 이 도구는 기존의 알코올사용장애와 위험한 음주 모두를 선별하는 장점이 있고, 소요시간이 짧으며,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는 도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Allen, Duane and Robert, 2001). 본 연구에서는 이 병욱·이충현·이필구·최문종·남궁기(2000)가 번안하여 타당도 검사를 마친바 있는 AUDIT-K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35이다.

##### (2) 독립변인의 측정

###### ① 개인특성 변인

###### 가. 우울감

융(Zung, 1965)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우울척도를 김정희(1987)가 번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울한 증상을 자기가 평가하도록 한 평가척도이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단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06이다.

### 나. 자존감

로젠버그(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척도(Self Esteem Scale)를 이영자(1996)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의 5단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12이다.

### 다. 감각추구경향

주커맨(Zuckerman, 1985)의 자극추구성향척도(SSS: Sensation Seeking Scale)를 윤재희(1998)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6문항을 선별하고 5단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하다고 해석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54이다.

### 라. 음주동기

음주동기에 대한 측정은 신행우(1998)가 제작한 음주동기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음주에 대한 동기를 다각적으로 질문하고 있으며, 5단 척도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동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912이다

## ② 가족환경 변인

### 가. 부부관계

부모의 부부화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포터(Porter, 1980) 등이 개발한 부부불화척도를 김선애(1996) 등이 변안하여 사용한 문항 중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5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23이다.

### 나.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박지원(1986)의 사회적지지척도를 참고로 이명화(1998)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척도 중 가족지지와 관련한 5문항을 5단척도로 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928이다.

### 다. 부모음주문제

부모의 음주문제는 존스(Jones, 1983)가 개발한 CAST(Child of Alcoholics Screen Test)를 사용하였다. CAST는 부모의 음주와 관련된 개인의 행동경험, 감정 등을 사정하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윤정(2004)이 사용한 바 있는 CAST-K중에서 부모의 음주빈도와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10문항을 '예', '아니오' 의 2단 척도로 하였고 점수가 많을수록 부모의 음주문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784이다.

## ③ 대학생활 변인

### 가. 친구의 영향

음주에 대한 친구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제서 등(Jessor et al., 1995)이 개발한 친구모델척도와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김성중(2000)이 제작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4문항 즉, 사귀는 친구들의 음주정도과 친구의 음주권유, 음주에 대한 친구들의 압

력, 음주하는 친구와의 어울림 정도를 5단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영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38이다

#### 나. 학교생활만족

소속한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황진숙(1995), 홍문균(1996)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대학교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5단 척도 10문항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만족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758이다.

#### 다. 거주형태, 학업성적 및 동아리 활동

대학생활 관련변인으로 거주형태는 부모동거 '1'과 기숙사 및 기타 '2'로, 동아리활동은 무 '1', 유 '2'로 하였고, 학업성적은 지난 1년 간(두 학기) 총 학점을 기록하게 하여 채점하였다.

### (3)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는 성별과 함께 신앙생활과 최초음주연령을 포함하였다. 신앙과 최초음주연령이 통제변인으로 추가된 점은 이들 변인들이 대학생의 음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수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 3)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 분석

분석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였고, 대표적 인구학적 속성인 성별에 따라 제반 음주양상(음주빈도, 음주량, 음주문제, 음주연령 등)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카이제곱( $X^2$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문제성음주자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AUDIT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카이제곱( $X^2$ )검증을 적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심리사회적 요인이 종속변인인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신앙생활, 최초음주연령이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414)

특성	구분	n	%	Mean(SD)
성별	남	199	48.7	-
	여	214	51.7	
학년	1학년	189	45.4	21.6세(2.54)
	2학년	124	30.1	
	3학년	69	16.6	
	4학년	32	7.8	
계열	인문계열	222	45.9	-
	자연계열	189	54.1	
신앙생활	유	56	13.5	-
	무	375	86.5	
동아리	유	99	23.9	-
	무	312	75.4	
학업성적	4.0 이상	58	14.1	3.41(1.01)
	3.0-3.9	250	60.7	
	2.9 미만	103	25.2	
주거형태	부모동거	348	84.1	-
	기숙사	32	7.72	
	자취 및 기타	33	7.97	
최초 음주연령	13세 이하	34	8.3	17.1세(2.93)
	14-16세	100	24.2	
	17-19세	175	42.4	
	20세 이상	102	24.8	

〈표 1〉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남녀학생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대상자의 45.4%가 1학년인데 반해 4학년은 7.8%에 지나지 않는 것은 조사대상자가 일반교양교과목 수강생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계열별로 볼 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비슷한 비중으로 본 조사에 참여하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86.5%)이 하하는 학생(13.5%)보다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종교가 있느냐?'는 물음보다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동아리 참여여부를 보면 상당수의 학생(75.4%)들이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지난 1년간 학업성적(학점)의 평균은 3.41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를 보면 84.2%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7.7%가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약 70%는 중·고등학교 때 최초 음주를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입학 이전에 음주한 비율도 약 32.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조사대상자의 음주양상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음주양상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음주양상

항목	구분	남		여		전 체		x <sup>2</sup>
		n	%	n	%	n	%	
월 평균 음주회수	1회 미만	50	25.2	72	33.5	122	29.9	16.58*
	2-4회	86	43.3	96	44.7	182	41.8	
	5-8회	47	23.4	36	16.8	83	16.2	
	9회 이상	16	8.2	10	5.2	26	13.4	
1회 음주량	1-2잔 미만	14	7.2	37	17.5	51	13.2	84.12***
	3-4잔	23	11.5	52	24.2	75	18.8	
	5-6잔	30	15.1	51	24.0	81	19.9	
	7-9잔	46	22.9	38	17.6	84	20.0	
최초 음주연령	13세 미만	21	10.6	13	6.2	34	8.3	9.85
	14-16세	51	25.6	49	23.2	100	24.3	
	17-19세	95	47.7	92	43.6	188	45.7	
	20세 이상	32	16.1	57	27.0	89	21.7	
음주피해	없음	92	46.3	131	61.4	223	54.9	15.89**
	월 1회 미만	61	30.6	50	23.7	111	26.6	
	월 2-3회	26	13.2	18	8.7	44	10.0	
	월 4회 이상	20	10.5	13	6.2	33	8.3	
음주에 대한 후회	없음	104	52.1	121	56.8	225	54.8	11.71*
	월 1회 미만	57	28.7	63	29.6	120	29.2	
	월 2-3회	25	12.4	13	5.9	38	8.7	
	월 4회 이상	13	6.7	16	7.5	29	7.2	

\*p<.05 \*\*p<.01 \*\*\*p<.001

〈표 2〉는 조사대상자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음주와 관련한 일반적인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남학생의 음주문제가 여학생에 비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 여 대학생 간에는 음주빈도와 양, 음주피해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난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Clements, 1999; 임경화, 1999; Hill and Chow, 2002). 음주량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많이 채택하는 한 달 간의 음주빈도를 보면 1회 미만이 여학생의 33.5%인데 반해 남학생은 25.2%이며, 9회 이상을 음주하는 남학생은 8.2%인데 반해 여학생은 5.2%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음주비율은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학생의 71.7%는 월 4회 이하로 음주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성인의 71.1%가 월 4회 이하로 음주한다는 제갈정(2001)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한 달간 음주빈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1회당 음주량이다. 본 연구에서 음주량은 잔 수로 계산하였다. 통상 한 자리(one sitting)에서 표준알코올<sup>5)</sup>을 다섯 잔 이상 마시는 경우를 binge drink(폭음)라고 하는데(Wechsler, Davenport, Dowdall, Moeykens, and Castillo, 1994), 조사결과 남학생의 81.4%와 여학생의 57%가 폭음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직장인의 47.1%(남 66.9%, 여 34.7%)가 폭음한다는 연구결과(권구영, 2005)나 미국대학생의 폭음을 44%(Vik, Carrello, Tate, and Field, 2000)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이며, 특히 남학생의 43.4%와 여학생의 16.3%는 1회 음주량이 10잔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성인의 1회당 10잔 이상 음주비율(제갈정, 2001)인 15.3%(남 24.6%, 여, 4.5%)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은 음주빈도도 문제이지만, 폭음의 패턴을 보인다는 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는 남학생의 폭음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성인 일반여성과 비교할 때 여학생의 폭음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 주목된다.

최초음주연령은 대학생의 문제성음주를 예측하는 지표로서 의미를 가지는데(McCabe, 2002), 본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남학생의 음주연령이 여학생에 비해 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특히 75.2%정도가 음주금지연령인 19세 이전에 음주한 경험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성기 등(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72.6%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의 음주관리정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개인의 음주피해에 대한 측정은 음주빈도나 음주량을 측정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알코올 분해속도와 음주 후의 사회적 책임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 후의 사회적 책임성은 문제성음주를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53%와 여학생의 39%가 음주에 따른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월 2회 이상 피해를 경험하는 남학생이 23.7%, 여학생이 16%에 이르고 있어서 남, 여학생 간에는 음주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유의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 간 음주에 따른 후회의 정도를 보면, 남학생의 19%와 여학생의 13%가 월 2회 이상 음주에 대해 후회한다고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48%와 여학생의 43%가 음주에 대해 후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성인의 음주 후회정도인 25%(제갈정, 2001)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대학생의 음주후회 정도가 일반성인에 비해 보다 많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폭음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임상적으로 볼 때 음주에 대해 후회한다는 것은 알코올에 대한 조절능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흔히 standard drink라고 하며, 그 기준은 맥주 12온스 컵 1잔, 4온스 컵의 포도주 1잔, 위스키 1.25온스 1잔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함량을 감안하여 소주 1잔과 맥주 1잔을 같은 것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통상 남자는 5잔, 여성은 4잔을 binge drinking이라고 하나, 본 연구에서는 남·여 동일하게 5잔으로 함.

(2) 문제성음주의 현황

〈표 3〉은 AUDIT을 기초로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AUDIT이 적용된 경우는 있으나(김용석, 1999; 이병욱 외, 2000; 제갈정, 2001; 권구영, 200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AUDIT의 절단점이 제시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고 있다. 김용석(1999)은 AUDIT을 통해 일반성인을 전국 단위로 조사한 결과 총점 8점(민감도 87%)이상의 인구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32.2%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병욱 외(2000)는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적 연구를 통해 문제성음주자를 선별하는 절단점으로 8점보다 더 높은 AUDIT 12점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용적인 음주문화를 고려할 때 8점보다는 12점이 민감도와 특이도를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페밍(Femming, 1991)은 대학생에게 AUDIT을 적용한 결과 문제성음주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8점을 절단점(민감도 94%, 특이도 66%)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UDIT 12점이 문제성음주자를 구분하는 절단점으로 제시된 것 외에는 별다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여학생별로 각각 8점과 12점을 기준으로 하여 문제성음주자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기본 속성 변인별 음주자의 분포

속성		음주자 분류(AUDIT 기준)					
		8점 기준			12점 기준		
		정상 음주자	문제성 음주자	$x^2$	정상 음주자	문제성 음주자	$x^2$
성	남 학생	152(36.8)	260(63.2)	30.6***	237(57.6)	175(42.4)	35.5***
	여 학생	241(58.7)	171(41.3)		329(79.7)	83(20.3)	
	계	203(47.8)	209(52.2)		289(68.6)	123(31.4)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UDIT 8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문제성음주자는 52.2%(남학생 63.1%, 여학생 41.3%)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반성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같은 절단점을 사용하여 32.2%가 문제성음주자라고 한 김용석(1999)의 연구와 31.2%가 문제성음주자라고 한 제갈정(2001)의 연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의 대학생이 문제성음주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AUDIT 12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문제성음주자는 31.4%(남학생 42.4%, 여학생 20.3%)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 역시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와 기준을 적용할 경우 19.5%(남, 35.2%, 여 3.9%)가 문제성음주자라는 제갈정(2001)의 연구와 비교하면 훨씬 많은 비율의 대학생이 문제성음주자라는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학생의 문제성음주자 비율(20.3%)이 일반성인(3.9%)에 비해 매우 높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문제성음주자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AUDIT의 절단점을 파악하는 연구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3) 문제성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분석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과 모형의 설명력을 살피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자료가 회귀분석의 가정에 적절한가에 대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통제변인들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다수의 변인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①	1													
②	-.10	1												
③	-.04	-.41**	1											
④	-.00	-.31**	.20**	1										
⑤	-.28**	-.04	.31**	.11*	1									
⑥	-.03	.29**	-.26**	-.22**	-.15**	1								
⑦	.09	.12*	-.02	-.11*	-.11*	.41**	1							
⑧	-.12*	-.08	.18**	.08	.39**	-.37**	-.46**	1						
⑨	-.03	.03	.03	-.05	.09	-.05	-.12*	-.09	1					
⑩	.00	.28**	-.17**	-.29**	-.21**	.28**	.17**	-.11*	.01	1				
⑪	.00	.13*	.06	-.04	.07	-.03	-.02	.04	-.04	.09	1			
⑫	-.16**	-.32**	.15**	.09	.41**	.08	-.24**	.05	.08	-.13*	.12*	1		
⑬	.06	.12*	-.12*	-.11*	-.18**	.12*	.08	-.18**	-.07	.32**	.02	-.13*	1	
⑭	-.16**	-.12*	.18**	.16**	.43**	-.13*	-.25**	.29**	.07	-.11*	.14*	.23**	-.12*	1

\*p<.05, \*\*p<.01 N= 412

① 최초음주연령 ② 자존감 ③ 감각추구 ④ 우울 ⑤ 음주동기 ⑥ 가족지지 ⑦ 부부관계 ⑧ 부모음주문제 ⑨ 거주형태 ⑩ 학교생활의 만족 ⑪ 동아리활동 ⑫ 친구영향 ⑬ 학업성적 ⑭ 문제성음주

상당수의 독립변수들이 문제성음주와 정적(+) 혹은 부적(-)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심리사회적 요인들 중에서 우울이나 감각추구 경향, 음주동기, 부모음주문제는 문제성음주와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울이 높을수록, 감각추구경향이 많을수록, 음주동기가 높을수록, 부모음주문제가 많을수록 대학생 문제성음주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존감, 가족지지, 부부관계, 학교생활만족, 성, 신앙생활, 음주연령은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가족지지가 적을수록, 부부관계가 약할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적을수록, 신앙생활정도가 약할수록, 최초음주연령이 낮을수록 문제성음주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것이다. 일부요인들은 낮은 상관관계(이를 테면 -.11 등)임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본 연구의 사례수(N=412)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요변수들 간에 상관이 높은 경우(약 .70 이상)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변인들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의심될 만한 상관계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회귀분석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

(VIF)를 점검함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검토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본 연구의 변인들이 회귀분석의 가정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잔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잔차들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정상성, 동변량성을 만족시켜주었고, 잔차의 독립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5〉는 심리사회적 요인이 문제성음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회인구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심리사회적 요인을 투입하는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 1에 의하면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성별, 신앙생활, 최초음주연령은 문제성음주(AUDIT)의 변량을 12.7%를 설명하고 있다( $R^2=.127$ ,  $p<.001$ )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beta=-0.18$ )에게서 음주문제가 유의하게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생활( $\beta=-0.25$ )은 문제성음주의 경향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최초음주연령( $\beta=-0.15$ )이 빠를수록 문제성음주의 경향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의 순위는 신앙생활, 성별, 최초음주연령 순이었다. 신앙생활이 음주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종교활동이 알코올의 사용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Durkin et al., 1999; Templin et al., 1999)과 일치하며, 음주연령이 낮을수록 문제성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낮은 연령에서 음주할수록 음주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메카베(McCabe, 2002)와 박종순(2000)의 보고와 일치한다.

모델 2는 사회인구적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개인적 특성요인을 첨가한 것으로 자존감과 우울, 감각추구경향, 음주동기의 개인적 특성 요인은 1단계에 비해 17.9%의 유의한 설명력 증가를 보였다( $R^2=.286$ ,  $R^2$ 변화량=.159,  $p<.001$ ). 이는 개인적 특성요인이 문제성음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로 제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적 특성 요인이 추가됨으로써 약간의 영향력 감소는 보였지만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여전히 유력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모델 2에 따르면 개인적 특성 중 음주동기( $\beta=-0.34$ )와 감각추구경향( $\beta=-0.19$ )이 높아질수록 문제성음주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존감이 낮고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문제성음주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존감과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존감이나 우울이 대학생의 음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볼라드 등(Vollrath et al., 2002)과 루이스(Lewis, 2000)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특히 음주동기는 문제성음주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주동기는 대학생의 음주빈도와 문제성음주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카레이 등(Carey et al., 1997)의 주장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감각추구경향이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카츠 등(Katz et al., 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학생의 음주는 긴장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그 자체보다는 음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가 해소되는 경험이 더 중요한 예측요인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모델 3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환경 요인을 추가한 것으로서 가족환경 요인은 2단계에 비해 4.2%의 유의한 설명력 증가를 보였다( $R^2=0.32$ ,  $R^2$  변화량=.042,  $p<.001$ ). 가족환경요인이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개인특성요인과 함께 투입되어도 이들 요인들의 영향력은 1,2 모델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족관련 요인 중 가족지지와 부부관계는 문제성음

주에 부적인 방향, 즉 가족지지가 많을수록, 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문제성음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음주문제가 많을수록 문제성음주의 경향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 음주문제( $\beta = -0.14$ )의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음주문제는 대학생의 적응유연성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상쇄된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Harter, 2000)와는 다른 결과이며, 부모의 음주문제는 자녀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는 제니슨 등(Jennison et al., 1997)의 주장과 일치한다. 모델 4는 문제성음주에 미치는 대학생활의 영향을 보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활요인은 7.1%의 유의한 설명력 증가를 보였다( $R^2 = .39$ ,  $R^2$  변화량 = .071,  $p < .001$ ).

<표 5> 문제성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모델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beta$ (SE)	$\beta$ (SE)	$\beta$ (SE)	$\beta$ (SE)
<b>(사회인구적요인)</b>				
성별	-0.18(0.50)***	-0.16(0.49)***	-0.15(0.50)***	-0.17(0.50)***
신앙생활	-0.25(0.48)***	-0.20(0.43)***	-0.22(0.47)***	-0.23(0.46)***
최초음주연령	-0.15(0.12)**	-0.13(0.09)**	-0.13(0.09)**	-0.10(0.09)*
<b>(개인특성 요인)</b>				
자존감		-0.01(0.41)	-0.02(0.45)	-0.02(0.44)
우울감		0.04(0.38)	0.03(0.39)	0.03(0.37)
감각추구		0.13(0.39)**	0.12(0.42)**	0.11(0.40)*
음주동기		0.34(0.81)***	0.31(0.68)***	0.29(0.52)***
<b>(가족환경 요인)</b>				
가족지지			-0.04(0.50)	-0.11(0.49)*
부부관계			-0.07(0.54)	-0.05(0.53)
부모음주문제			0.15(0.31)***	0.13(0.30)**
<b>(대학생활 요인)</b>				
학교생활만족				-0.07(0.46)
동아리활동				0.06(0.75)
학업성적				-0.11(0.30)*
거주형태				0.07(0.41)
친구의 영향				0.15(0.56)***
F 값	14.63***	18.77***	16.09***	14.58***
R <sup>2</sup>	0.127	0.286	0.328	0.399
R <sup>2</sup> 변화량		0.159***	0.042***	0.071***

성별(0=남자), 신앙생활(0=신앙생활 하지 않음), 동아리가입(0=동아리 비가입)  
거주형태(0= 부모와 동거), \* $p < .05$ , \*\* $p < .01$ , \*\*\* $p < .001$

대학생활요인이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개인특성요인 그리고 가족환경 요인과 동시에 투입될 경우 모델3에 비해 최초음주연령과 감각추경향, 부모의 음주문제요인의 영향력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요인의 투입은 일부변인의 영향력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문제성음주 대학생의 개입은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결과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문

제성음주( $\beta = -0.11$ )도 증가하며, 음주에 대한 친구의 영향( $\beta = -0.26$ )이 많을수록 문제성음주의 경향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음주하는 친구가 많고 친구로부터 음주의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문제성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선행연구(Agnostinelli et al., 1995; Read et al.,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음주하는 친구가 많은 대학생은 음주문제 개입의 일차적인 과녁집단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적은 문제성음주 대학생을 가장 쉽게 판별할 수 있다는 던킨 등(1999)의 주장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낮은 학업성적이 음주의 원인인지 음주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주거상태가 문제성음주와 밀접히 관련된다는 연구(Martin et al., 1993; Wechsler et al., 2002)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주거형태는 음주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교의 기숙사 규율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에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박중순(2000)은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학교생활만족도와 동아리활동이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에서의 회귀분석결과 이 두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심리사회적 변수가 투입된 최종모델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변수를 순서별로 보면 음주동기, 신앙생활, 성별, 부모음주문제, 친구의 영향, 가족지지, 감각추구, 학업성적, 최초음주연령 순이다. 이는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측면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측면, 가정적 측면, 학교적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실천이 강조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과 같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의 실태를 파악하고 심리사회적 요인이 문제성음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은 폭음의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며, 일반성인의 31.2%가 문제성음주자인데 반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인 52.6%가 문제성음주자이며,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음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제변인으로 동원된 인구사회적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셋째, 개인적 특성요인에서는 음주동기와 감각추구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환경요인은 부모음주문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생활요인에서는 친구의 영향과 학업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 변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리사회적 요인을 동일한 수준으로 동시에 투입하였을 경우 각 변인의 영향력 순위는 음주동기, 신앙생활, 성별, 부모음주문제, 친구의 영향, 가족지지, 감각추구, 학업성적, 최초음주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52.6%가 문제성음주자로 밝혀지는 결과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사

용하는 선행연구들보다 훨씬 높은 분포이다. 이는 음주가 점차 연소화 되어가고 여성의 음주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대학생의 음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민간주도로 일부에서 대학생음주 문제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대학당국은 미국의 대학처럼 음주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학칙(알코올의 판매와 홍보의 금지, 음주를 동반하는 교내행사의 조건과 허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금지, 알코올에 대한 교육, 치료, 상담에 대한 규정)에 포함하고 음주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음주문제를 다루는 교과목이 교양교과목 단위로 개설되도록 하여 대학생들이 알코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상담센터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재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해 개별적(개인력 및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이고 보편적(음주계몽프로그램, 알코올강좌 등)인 개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알코올상담센터나 사회복지기관이 대학과 연계하여 음주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사회복지사가 이 분야에 개입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 문제성음주에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그 영향력이 큰 요인 순으로 개입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음주동기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음주문제의 개입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초기사정단계에 개인이 음주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사정하는 일은 음주동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신앙생활이 음주문제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에게 삶에 대한 바람직한 규범이 설정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신앙의 기능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생들이 자율 속에서도 책임과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인성강화프로그램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남학생의 음주문제가 심각하지만 급증하는 여학생들의 음주문제를 고려할 때 여학생 역시 음주문제 개입을 위한 일차적인 과녁집단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음주문제가 문제성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의 측면에서 부모의 음주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부모의 음주문제가 성장기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어떠한지를 알리는 체계적인 노력과 더불어 음주문제를 가진 부모를 둔 자녀를 조기에 원조하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음주문제를 가중시키는 친구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전략으로는 자기주장기술이나 음주사양기술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 내에 음주를 대신할 다양한 놀이문화를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가족으로부터의 부족한 지지를 대신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개발하고, 가족구성원간의 화합에 도움이 되는 교양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진 자극추구경향과 관련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내적인 자극을 추구하고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오락, 레저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며, 학업성적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음주가 학업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해 사회복지분야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보듯이 심리사회적 요인은 대학생의 문제성음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개인과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복지 개입의 주요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시범사업인 학

교복지사업을 통해서나마 사회복지사가 중·고교에 개입하고 있는데 반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의 개입경험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알코올치료 분야에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실천영역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에는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체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알코올 문제에 많은 개입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관련 영향력을 실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보완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표집의 대표성 문제이다. 즉, 영남지역의 1개 대학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재학생을 표집하는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사회적 요인을 다루고자 하였지만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예를 들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다 포괄되지 못하고 연구가 진행된 것의 한계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초기성인인 대학생의 음주양상과 문제성음주의 실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심리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추후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서둘러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음주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의 기초 자료들이 보다 더 많이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영태. 1995. "여대생의 음주실태와 음주에 대한 인식구조". 『덕성여대논문집』 14: 327-338.
- 권구영. 2005. "직장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무직직장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93-118.
- 김연숙. 1991. "일 도시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석. 1999. "국내외 알콜사용장애선별척도의 비교를 통한 한국성인의 알콜사용장애역학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7: 67-88.
- 김성중. 2000. 또래집단의 영향이 청소년들의 네트워크컴퓨터게임 이용과 충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련·전선영·김정희. 2004.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여성 ACOA의 아버지의 알코올중독, 가족기능, 부모와의 애착,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4): 317-343.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적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중순. 2000.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행우. 1999. "성격특성과 음주동기가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희. 1998. "인터넷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감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화. 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 갈등 태도와 지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욱 · 이충현 · 이필구 · 최문중 · 남궁기. 2000. "한국어판알코올사용장애 진단검사(AUDIT)의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4(2): 83-92.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 임경화. 2004. "대학생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갈 정. 2001. 『한국인의 음주실태』. 한국 음주문화연구센터.
- 장승욱. 1997. "대학생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 『한국사회복지학』 31: 423-440.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조성기 · 장승욱 · 윤혜미 · 이해경 · 최현숙 · 제갈 정. 2001. 『대학생의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조준범.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효숙. 2002. "건강신념모델을 이용한 대학생의 음주관련요인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2004. "아버지의 음주문제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성수 · 박종순. 2000. 『대학생의 문제음주예방을 위한 홍보 및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 한성렬 · 신행우 · 최일호. 1997. "대학생의 음주행동과 심리사회적 변인들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논총. 27: 31-58.
- 황진숙. 1995. "교사의 역할에 따라 선호되는 특성과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문균. 1996. "고등학교학생의 계열별 학교생활 갈등요인과 갈등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종필. 1990. "대학생의 술에 대한 기대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kerman, N. W. 1966. *Treating the troubled family*. New York: Basic Books.
- Agostinelli, G., J. Brown, and W. Miller. 1995. "Effects of normative feedback on consumption among heavy drink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rug Education* 25: 31-40.
- Allen, J. P., D. F. Reinert, and R. J. Volk. 2001. "The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id to recognition of alcohol problems in primary carepatients." *Preventive Medicine* 33: 428-433.
- Baer, J. S. 2002. "Students Factors: Understanding individual variation in college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14: 40-53.
- Baer, J. S. and M. M. Carney. 1993. "Biases in the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of alcohol us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4: 54-60.
- Bean, M. 1975. "Alcohol Anonymous." *Psychiatric Annals* 5(2): 7-61.
- Boulby, J. 1958. "The nature of child's ties to the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137-144.

- Bray, J. H., J. G. Getz, and P. E. Baer. 2000. "Adolescent individuation and alcohol use in multi-ethnic youth." *Journal of Study on Alcohol* 61: 588-597.
- Bray, J. H., G. J. Adms, and J. G. Getz. 2001. "Developmental, family, and ethnic influences on adolescent alcohol usage: A growth curve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 301-314.
- Brennan, A. F., S. Walfish, and P. AuBuchon. 1986. "Alcohol use and abuse in college students: II. Social/ environment Correlates, Methodological issus,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 21(4&5): 475-493.
- Brown, S. A., M. Goldman, A. Inn, and L. Anderson. 1980. Expectations of reinforcement by alcohol: Their domain and relation to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419-426.
- Carey, K. B, and C. J. Correia. 1997. "Drinking motives predict alcohol-related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1): 100-105.
- Cater, A. L., 2000. *The role of resilience in the adjustment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ampaign.
- Clements, R. 1999. "Prevalence of alcohol-use disorders and alcohol-related problems in a college student sample."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3): 111-118.
- Cooper, M. L. 1994.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 117-128.
- Deykin, E. Y., J. C Levy, and V. Wells. 1987. "Adolescent depression, alcohol and drug abus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6: 178-182.
- Durkin, K. K., T. W. Wolfe, and G. Clark. 1999. "Social bond theory and binge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A multivariate analysis." *College Student Journal* 33(3): 450-461.
- Fischer K. E., M. Kittleson, R. Oqletree, K. Welshiner, P. Woehlke, and J. Benshoff. 2000.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lcoholism and family dysfunction to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3): 151-156.
- Flemming, M. F., K. L. Barry and R. Macdonald. 1991. "The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AUDIT) in a college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 26: 1173-85.
- Ham, L. S. , and D. A. Hope. 2003. "College student and problematic drinking, A review of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719-759.
- Harter, S. L. 2000.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 review of the recent empirical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 311-337.
- Hill, E. M., L. T. Ross, S. A. Mudd, and F. C. Blow. 1977, "Adulthood functioning: The joint effects of parental alcoholism, gender and childhood socioeconomic stress." *Addiction* 87: 1677-1690.
- Hill, E. M., and K. Chow. 2002. "Life-history theory and risky drinking." *Addiction* 97: 401-413.
- Hingson, R. W., T. Heeren, R. C. Zakoos, A. Kopstein, and Henry Wechsler. 2002.

- Magnitude of alcohol-related mortality and morbidity among U.S. college students ages 18-24.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 136-144.
- Hops H., E. Tildesley, and E. Lichtenstein. 1990. "Parent-adolescent problem -solving interactions and drug use." *Am. J. Drug Alcohol Abuse* 16: 1072-1085.
- Jennison, K. M., and K. A. Johnson. 1997. "Resilience to drinking vulnerability in women with alcoholic par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dyadic cohesion in marital communication." *Substance Use and Misuse* 32: 1461-1489.
- Jessor, R., J. V. D. Vos, J. Vanderryn, F. M. Costa, and M. S. Turbin.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fac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23-933.
- Jones, J. W. 1983.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A validation study." *Stud. Bull. Soc. Psychological Addictive Behavior* 2: 155-163.
- Katz. E. C., K. Fromme, and E. J. DAmico. 2000. "Effects of outcome expectancies and personality on young adult's illicit drug use, heavy drinking, and risky sexual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1): 1-22.
- Keeling, R. P. 2002. "Binge drinking and the college environment."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0: 197-201.
- Kushner, M. G., K. J. Sher, and D. J. Erickson. 1999. "Prospectiv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DSM-III anxiety disorders and alcohol use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5): 723-732.
- Lewis, B. A., and K. H. O'Neill. 2000. "Alcohol expectancies and social deficits relating to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25(2): 295-299.
- MaCabe, S. E. 2002. "Gender differences in collegiate risk factors for heavy episodic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 49-56.
- Martin, C. M., and M. A. Hoffman. 1993. "Alcohol expectancies, living environment peer influence, and gender: A model of college-student drink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4: 206-211.
- Miller, N. S. 1995. *Addiction psychiatry: current diagnosis and treatment*. New York: Wiley-Liss.
- Nagoshi, C. T., M. D. Wood, C. C. Cote, and S. M. Abbit. 1994. "College drinking game participation within the context of other predictors of alcohol use and problem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8(4): 203-213.
- O'Malley. P. M., and L. D. Johnston. 2002. "Epidemiology of alcohol and other drug use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S14: 23-39.
- Perkins, H. S. 2002. Surveying the damage: "A review of research on consequences of alcohol misuse in college population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S14: 91-100.
- Prinstein M. J., J. Boegers, and A. Sprito. 2001. "A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 health risk behavior: Factors that alter or add to peer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6: 287-297.
- Read, J.,P., M. D. Wood, O. J. Davidoff, J. McLacken, and J. F. Campbell. 2002.

- "Making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The role of alcohol-related social influence factors in students' drinking." *Substance Abuse* 23(1): 53-65.
- Rosenberg, F. R., and M. Rosenberg. 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173-177.
- Schall, M., T. J. Weede, and I. Maltzman. 1991. "Predictors of alcohol consumption by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37(1): 72-80.
- Sher, K. J. 1991. *Children of alcoholics: A critical appraisal of theory and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wart, S. H., and H. Devine. 2000. "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and drinking motives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495-511.
- Straus, A., and S. Bacon. 1953. *Drinking in colleg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Templin, D. P., and M. J. Martin.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gender, and drinking patterns among Catholic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33(4): 488-495.
- Ullman, S. E., G. Karabatsos, and M. P. Koss. 1999. "Alcohol and sexual assault in a national sample of college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6): 603-625.
- Vik, P. W., P. Carrello, S. R. Tate, and C. Field. 2000. "Progression of consequences among heavy-drinking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4(2): 91-101.
- Vollrath, M., and S. Torgersen. 2002. "Who takes health risks? A probe into eight personality typ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7): 1185-1197.
- Wechsler, H., A. Davenport, G. Dowdall, B. Moeykens, and S. Castillo. 1994. "Health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binge drinking in colleg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2: 1672-1677.
- Wechsler, H., J. E. Lee, M. Kuo, and H. Lee. 2000. "College binge drinking in the 1990s: A continuing problem."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 199-210.
- Wechsler, H., J. E. Lee., T. F. Nelson, and M. Kuo. 2002. "Underage college students' drinking behavior, access to alcohol, and the influence of deterrence policie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0(5): 223-236.
- White, H., and E. Labouvie. 1989. "Towards the assessment of adolescent problem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0: 30-37.
- Young, R. M., and T. P. S. Oei Knight. 1990. "The tension reduction hypothesis revisited: An alcohol expectancy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5: 31-40.
- Zastrow, C., and K. K. Kirst-Ashman. 2001.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Wadsworth Publishing CO.
- Zuckerman, M. 1979. *Sensation seeking: Beyond the optimal level of arousal*.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3: 508-515.

# The Actural Condition and the Impact of Psychosocial Factors on Problem Drinking among the College Students

Jeong, Weon-Cheol  
(Silla University)

Drinking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have been increasing and being severe social problems. When it is compared with other areas, the research about drinking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re rare. This study was to examine psychosocial factors influencing on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The sample size of this study was 414, which made it possible to do statistical inference. AUDIT was applicated to measure the drink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 As statistical method,  $X^2$ - test, t-test,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main finding provided that drinking problem of college students was more severe than adult one. Especially binge drinking pattern was remarkable. Male student had many alcohol problems than female students. This study also revealed gender, religious activity, first drinking age, sensation -seeking, drinking motivation, parents' drinking problem, schoolwork record, peer influence had significant direct impact in problem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uthor suggested some practical implication and preventive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and added further study tasks.

Key words: college students, AUDIT, psychosocial factors, drinking problems.

[논문접수일 2005. 8. 31. 게재확정일 2006. 1. 26.]